

상호대차를 아시나요?

글_전창호 (부산여자대학 도서관 사서)

대출(貸出)이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준다는 뜻을 가진 일본식 한자어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대출을 대여(貸與)와 구분 없이 쓴다. 아마도 시중의 도서대여점, 비디오대여점이란 명칭에 익숙해진 탓일 게다.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이 책 대여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한다.

엄밀히 따지면 대출과 대여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대출(lending)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로 공공시설을 통해 공중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대여(rental)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대여점과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행위가 각각 ‘대여’와 ‘대출’이라는 별개의 용어로 쓰이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니, 이 글을 읽은 독자들 중에서는 이제부터 도서관에 가서 ‘대여’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안 계실 줄로 믿는다.

최근에 자가대출반납기를 설치하는 도서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개의 대출은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해 부족 또는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해 사서와 이용자 간에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러브 스토리>는 래드클리프대 도서관에 간 올리버(라이언 오닐 분)가 제니퍼(알리 맥그로우 분)와 다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하버드대생인 올리버가 래드클리프대 도서관의 책을 빌리려 하자, 학생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래드클리프대생인 제니퍼는 하버드대 도서관을 놔두고 왜 여기 왔느냐며 올리버에게 핀잔을

준다. 올리버와 제니퍼의 첫만남은 이렇게 도서관에서 다툼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만약 이 영화가 요즘에 제작되었다면 그러한 에피소드를 설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도서관에는 상호대차(相互貸借)라는 유용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문자어인 ILL(interlibrary loan)로 주로 지칭되는 상호대차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에 의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980~1990년대에 학위논문을 쓴 분들 중에는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다른 대학을 방문하거나 또는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울로 찾아간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발품을 파는 분들은 없을 듯하다. 저널을 비롯해 학위논문 까지도 인터넷으로 입수할 수 있거니와, 디지털 원문으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는 상호대차를 통해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호대차 제도는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학도서관을 비롯한 전문도서관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대학도서관들 간에는 2000년대 이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iss4u.net>)이 주도하여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의 올리버라면 하버드대 도서관에 가서 래드클리프대 도서관 소장자료를 상호대차 신청했을 것이고, 따라서 제니퍼를 만날 기회도 영영 없었을지 모른다. **★**



도서관 소식

1. 순천시, 찾아가는 그림책버스 '파란달구지' 운행

전남 순천시는 마을과 초등학교 내 도서관이 없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책 버스를 운행한다. '파란달구지'라는 이름의 45인승 대형버스에는 그림책 3,500여 권이 구비되어 있고 30여 명의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차 내부에는 멀티동화 관람 시설이 갖춰져 있고 농촌지역 유아들을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매주 월~금, 9곳 마을과 학교 순회 방문)

2. 부천시, 제8회 도서관문화한마당 개최

오는 9월 15일 2시부터 7시까지 부천시 원미공원에서 '반갑다!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8회 도서관문화한마당이 열린다.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경인문고, 교보문고, 한결문고에서 협찬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14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열리고 북낭타, 인형극, 음악회 등도 공연된다.

3. 김해시, '책 읽는 도시 김해' 프로젝트 추진

김해시는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책사회, 이사장 도정일)과 '책 읽는 도시 김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지난 8월 1일 협약을 맺었다. 김해시와 책사회는 2020년까지 김해를 독서 도시, 책으로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 북스타트, 어린이전용 기적의도서관 건립 등 10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찰칵, 도서관 풍경

여름방학 내내 도서관에 왔어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그동안 보고 싶었던 동화책도 실컷 봤죠. 그리고 또 하나.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재미있는 과학 실험. 그리고 올망졸망 모여 발레 수업도 받았어요.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